

대구·경북, 경쟁도시 6곳 꺾고 '국내 개최지' 선정

2015 세계 물포럼 유치 박차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난 16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국내 개최도시 선정 심사결과 서울, 인천, 대전 등 6개 경쟁도시를 물리치고 국내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대구·경북이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제치고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국내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었고, 죽음이 강 금호강을 생태화현으로 복원(1984년 BOD 111ppm→2006년 2.6ppm), 오염사고 등의 역경을 겪으면서도 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가 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지로 미래 한국 물산업의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임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 WWF)은 21세기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비정부간 기구인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의 제안으로 매3년마다 '세계 물의 날(3.22)' 전후로 개최되는 수자원분야 가장 크고 권위 있는 국제행사이다.

정부는 2009년 3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5차 물포럼 행사에서 수자원 전 국무총리가 2015년 제7차

포럼의 한국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 한 바 있으며, 그해10월 세계물위원회 총회(프랑스 파리세유)에 참석,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포럼, 수자원학회 등 4개 기관이 이사회에 진출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금년 1월, '낙동강지역유치위원회'를 구성 4대강살리기 사업 선도지역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역사·문화자원 인프라(가야·신라·유교문화 등)를 연계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었다.

앞으로, 정부(국토해양부)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공동으로 개최국 투표권을 가진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

(32개·한국 4개 기관 제외)에 대한 지지 요청, 물위원회 회원 증대 노력 등 세계 물포럼 한국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이 2015년 세계물포럼 개최국으로 최종 결정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수자원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제고와 물산업 발전, 지역소재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교류보 마련 등 물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물론, 녹색일자리 창출과 관광·수박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봉현 기자 mbh@seouilbo.net



농민 혼 깃든 '예천 통명농요'

보존회, 내일 전수관서 20번째 정기공연

예천통명농요보존회(회장 안승규)는 19일 예천읍 통명리 통명농요 전수관에서 '예천통명농요 정기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는 농민의 생활인 노력이 삶의 애환, 고달픔, 괴로움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 전체가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농민의 혼이 깃든 통명농요의 전 과정을 선보인 것이다.

20번째 정기발표회 공연인 이번 공연은 지난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4-나호로 지정된 예천지방 전래 농

요로 '모심기 소리', '모심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 '논매기 소리', '논매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 '집으로 오면서 부르는 소리', '마당 논매기', '타작소리' 등으로 시연되며, 힘든 논일을 할 때의 고단함을 노래를 통해 즐거움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조상의 지혜와 슬기가 농요속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타락한 양반을 회롱하는 서민들의 놀음'인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인 부산 수영야류 탈놀음, '옛 선조들의 어려웠던 생활상을 재현'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5호인 충주 마수리농요, 영남다문화 가족의 영남민요, 예천창간농요, 흑음품물단의 공연 등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통명농요 보존회 안승규 회장은 "통명농요를 비롯한 전통 민요와 민속이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되어 같이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서 평소 갈고 닦으신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kgs@seouilbo.net

'해안의 풍경' 담은 이색 화장실

포항, 테라노바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발표

공중화장실도 테라노바를 만나면 아름다워진다.

포항시가 '형태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중화장실'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2010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에서 더 그라운드 스튜디오 최순용씨가 공모한 '해안의 풍경(coast shadow)'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뷰 플라이 오픈 투더오션(View fly open to the ocean, 정립건축사사무소 서재원씨)와 피어 토일렛(Pier toilet, 고려대학교 임용한씨)을 우수상으로 블루밍 화장실(Blooming 化粧室, 인혜대 대학원 서형석씨)와 투 플라잉 버즈(Two flying birds, 기한건축사사무소 박정수씨), 헤븐스 스마일(Heavens smile, 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정한진씨)를 장려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포항시는 이번 공모전을 위해 지난 4월 30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항의 자연환경에 어울리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중화장실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12개 작품이 응모돼 이달 15일 건축계획과 디자인, 한국 화장실 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작품을 선정했다.



'2010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에서 더 그라운드 스튜디오 최순용씨가 공모한 '해안의 풍경'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날 심사를 맡은 인혜대 김석태 교수(한국화학실험회 소속의 전문가)는 대상으로 선정된 '해안의 풍경(coast shadow)'에 대해 "포항의 해안선과 파도의 물결을 모티브로 삼아 구룡포의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기존의 화장실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화장실을 야외전시 및 예술공연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재해석한 점"에 대해 호평했다.

진영기 테라노바팀장은 "이번 공모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매년

건립빈도가 많은 공중화장실의 정형화된 형태를 탈피해 지역성과 예술성을 접목한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디어 공모대상 분야를 다룬 소규모 시설물에도 확대해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결과 대상에는 20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이상욱 기자 isw@seouilbo.net

영양, 신혼부부 대상
임신·육아교실 운영

영양군보건소(소장 은종영)는 18일 오후 종합복지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임신부 및 신혼부부 50명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한다.

임신·육아교실은 안동의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주최로 남양유업과 에이팜사의 후원으로 실시하며, 대상은 출산환경이 열악한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및 신혼부부에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체계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 수준 높은 정보 지식습득과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저출산극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임신부와 가족을 위한 포토이벤트, 도자기피부를 위한 톱살맞사기, 펠트로 만드는 아기 장난감 만들기, 태아가 건강해지는 웃음태교 교실 등 테마별 행복교실 운영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신비하고 소중한 깨닫고 임신동안의 태이발달과 엄마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습득시켜 건강한 자녀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영양군보건소는 매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모유수유교실운영, 저소득층 임신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등 임신부·영유아 건강관리와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기회제공으로 엄마와 아기를 위한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김계기 기자 ksg@seouilbo.net

"0세아 안심하고 맡기세요"

경주, 생후 3~12개월 영아 돌보미 서비스

경주시는 생후 3개월~12개월의 영아를 가진 저소득 맞벌이 부부와 취업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0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를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9,380만원을 투입, 실시한다.

0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취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양육지원을 위해,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0세아의 생활환경으로 찾아가는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0세아 돌보미는 40시간의 특별

교육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의 전문교육을 수료한 후 파견, 부모들이 더 신뢰할 수 있다.

돌보미는 1일 11시간, 주 5일, 월 220시간 범위 내에서 아동 연령에 맞는 서비스(이유식, 영아 목욕, 젓병소독 등)를 포함한 건강·위생관리 등을 제공하고, 월 서비스 이용료는 10만원 가운데 4인 가구 소득 기준 258만원 이하는 자부담 4만원, 294만원 이하는 51만원의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0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를 희

망하는 가정은 신청서,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770-2284로 신청하면 된다.

0세아 돌봄 서비스는 아이가 어려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주시는 이미 2008년부터 아이돌보미사업을 실시해 부모의 출장·아근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12세 미만의 가정에도 아이돌보미를 파견,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용 아이돌보미로 채용하는 등 2010 경주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해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이석기 기자 isi@seouilbo.net

자매마을 계포리 마늘 수확 지원

영천 문화공보과 직원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영천시 문화공보과(과장 조희석)는 지난 16일 자매결연마을인 청통면 계포리 독거노인 농가를 찾아 마늘수확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2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1,000여㎡면적의 마늘을 수확했다.

조희석 문화공보과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로 자매결연마을과의 정을 돈독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건철 기자 kgc@seouilbo.net

Advertisement for SK Chemicals. Title: 에너지 독립국 대한민국을 향해 SK주식회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Content: SK Chemicals is committed to providing clean energy and reducing CO2 emissions through its global operations and R&D. It highlights its presence in various countries and its dedica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